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한아름¹ 한세영²

Ah-Reum Han¹ Sae-Young Han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and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o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were also explored.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3 children from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Incheon. Data were analyzed through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22.0.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even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control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Moreover, attributional style for positive even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ly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Second,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significantly influenced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both negative events and positive events. Fin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events were observed.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revealed that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a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Such results 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resource in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or intervention programs for attributional style.

key words psychological contro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attributional style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됨.

¹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²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evenhow@ewha.ac.kr)

I. 서론

사람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실패와 성공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어떻게 설

명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정서와 행동의 동기, 기대가 달라지며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einer, 1979, 1986). 어떤 실패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의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새로운 일에 직면해도 도전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실수를 항상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갖고, 다시 도전하고 동기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발생할 일들에 대해, 그 상황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 또는 타인의 행위와 상황의 원인을 추론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귀인양식(attribitional style)이라 한다. 사람들마다 원인을 해석하는 데 개인차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몇 가지 차원들로 설명된다. Weiner(1979, 1986)는 성취와 관련된 상황의 원인을 세가지 차원- 통제소재(원인이 행위자 자신 또는 외부에 있는가)와 안정성(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가), 통제가능성(통제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라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교사의 편견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Abramson, Seligman 그리고 Teasdale(1978)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Reformulated learned helplessness)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의 원인을 통제소재, 안정성, 보편성(이번 상황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상황에서도 일어나는가)차원에 따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Abramson 등(1978)의 기준에 따르면, 긍정적 상황의 원인을 내적, 안정적, 보편적으로 설명하거나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외적, 일시적, 상황 특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 성향을 보였다. 반면, 긍정적 상황의 원인을 외적, 일시적, 상황특정적으로 설명하거나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내적, 안정적,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 Seligman, 1984).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귀인양식의 측정도구는 CASQ(Seligman et al, 1984)로, 가상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사건을 제시하고,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한 두 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귀인의 세 가지 차원(내적-외적, 안정적-일시적, 보편적-특정적)중 한 가지 차원만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각 상황들에서 귀인의 각 차원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낮은 신뢰도(0.45~0.61)를 보고하고 있다(Lakdawalla, Hankin, & Mermelstein, 2007; Seligman et al., 1984; Thompson, Kaslow, Weiss, & Nolen-Hoeksema,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주어진 사건들이 발생한 원인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원인 통제소재, 지속성, 보편성 각 차원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CASI)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귀인양식을 측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귀인양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상황에서 보이는 귀인양식(정상미, 2015; Houston, 1994; Rueger & Malecki, 2011; Schleider, Velez, Karuse, & Gilham, 2014; Velez et al, 2014) 또는 부정적인 귀인양식(Garber & Flynn, 2001; Glasgow, Dornbusch, Troyer, Steinberg, & Philip, 1997; Mezulis, Hyde, & Abramson, 2006)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스트레스 사건 또는 부정적 상황에서 부정적 귀인양식이 우울을 비롯한 정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된 관심을 받아왔으나(Abramson et al., 1978), 긍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귀인양식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긍정적인 생활 사건과 경험들이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웰빙에 영향

을 미치며, 부정적 사건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MacLeod & Moore, 2000; Shahar & Priel, 2002)와 긍정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는 아동은 우울이 낮다는 연구결과(Vines & Nixon, 2009)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황 뿐 아니라 긍정적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귀인양식은 아동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의 인지, 사회적 발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된다. 부정적 상황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것(부정적 귀인양식)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요인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Abramson et al., 1978; Coles, Turk, Heimberg, & Fresco, 2001; Garber & Flynn, 2001; Tripp, Catano, & Sullivan, 1997). 반면, 긍정적 상황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것(긍정적 귀인양식)은 부정적 생활사건 이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Vines & Nixon, 2009).

한편,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부족과 특성에 있다고 보았으며(Anderson, Horowitz, & French, 1983), 이민영과 김광웅(2011)의 연구에서는 행동 및 사건의 결과의 원인을 내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우, 친구와의 갈등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학업수행에 대한 동기와 기대가 달라지며,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iner, 1979, 198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귀인양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Houston(2016)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상황에서 내적, 안정적, 보편적인 귀인을 하는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다. 그러나 부정적 상황에서의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업 실패의 원인을 안정적인 요인 또는 내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상황에서의 마찬가지로 높은 학업수행을 보였지만, 학업실패의 원인을 보편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상황과는 달리 낮은 학업수행을 보였다. 즉, 내적 귀인과 안정적 귀인의 효과는 긍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상황이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보편적 귀인의 효과는 긍정적 상황과 학업실패와 같은 부정적 상황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 연구는 각 귀인양식의 차원(내적, 안정적, 보편적)에 따라 학업성취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귀인양식이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귀인양식에 차이가 나타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요인들이 귀인양식에 영향을 주는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고되고 있다(박경일, 이상주, 권기형, 2004; 여종일, 정문자, 2011; 이경남, 2010; 이소영, 허균, 2012; 정삼미, 2015; Garber & Flynn, 2001; Glasgow et al., 1997; Schleider et al., 2014; Velez et al., 2014).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는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변인이라 볼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의식 유발과 같은 심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아동의 사고와 감정에 침투하고 조정하려는 양육태도를 말한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고와 감정표현을 무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과 주변상황에 대한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Garber & Flynn, 2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귀인양식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chleider 등(2014)은 청소년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지속적이고, 다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정상미(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신이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정하며 위험한 세계에 있다고 지각하며, 앞으로도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세계를 통제하고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Ballash, Pemble, Usui, Bukley, & Woodruff-Borden, 2006; Coles et al., 2001; McGinn, Jerome, & Nooner, 2010; Schleider et al., 2014).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양육태도의 차원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이다.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며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태도를 말한다(박재윤,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6개월 이후에 낮은 부정적 귀인양식을 예측하였으며(Velez et al.,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령기 아동의 적응적인 귀인양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종일, 정문자, 2011).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과 지지와 함께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은 자녀가 행위의 원인을 노력과 의지, 동기 등 자신이 통제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남, 2010). 부모의 자율적, 민주적, 애정적,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귀인성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민주적,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성공과 실패상황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통제가능한 요인인 노력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일, 이상주, 권기형, 2004; 이소영, 허균, 2012). Glasgow 등(1997)의 연구에서도 애정이 결여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양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애정적인 반응과 지도 및 통제가 결여된 방임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귀인양식을 보여, 학업 결과를 자신의 낮은 능력이나 교사의 편견이나 운, 과제의 난이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와는 달리 자녀의 긍정적 귀인양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여러 유형들은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ber, 1996; Garber & Flynn, 2001;

Schaefer, 1965).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각각 독립적인 영향 뿐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각각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주효과만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부모의 애정적, 합리적인 양육행동과 심리적 통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남정민, 성형란, 권선영, 2014). 이 연구에서 아버지가 애정적 양육을 보일 때, 심리적 통제 수준에 관계없이 내재화 문제에 차이가 없었으나, 아버지가 거부적 양육을 보일 때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으면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nola와 Nurmi(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심리적 통제와 애정이 모두 높을 때,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높은 애정과 심리적 통제가 밀착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조작하며 자녀의 의존성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귀인양식은 청소년기동안 지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Hankin et al., 2009; Velez et al., 2014), 그렇다면, 그 이전시기인 학령기에 어떠한 귀인양식을 형성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큰 시기이며, 학령후기가 독특한 인지적 양식을 발달해가는 시기(Turner & Cole, 1994; Mezulis et al., 2006)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귀인양식을 살펴보고자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대체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Mezulis et al., 2006; Velez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귀인양식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253명의 4, 5, 6학년 아동(남학생 120명, 여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참고).

〈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53)

변인	빈도 (%)	
아동 성별		
남학생	120	47.4
여학생	133	52.6
아동 학년		
4학년	84	33.2
5학년	82	32.4
6학년	87	32.4
모 연령		
40세 미만	78	30.8
40세 이상 50세미만	166	65.6
50세 이상	5	2.0
무응답	4	1.6

2. 연구도구

1) 아동의 귀인양식

아동의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Conley, Haines, Hilt 그리고 Metalsky(2001)가 제작한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ventory: CASI)를 정미영(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번안한 뒤 다시 역번역 작업을 거쳐 사용하였다. 귀인양식 검사도구 CASI는 8가지 부정적 상황과 8가지 긍정적 상황 총 16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4가지 대인관계영역과 4가지 성취영역으로 분류되어있다. 응답자는 각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적은 후에, 자신이 작성한 원인에 대해 통제소재(밑줄에 적은 이유는 나 때문입니까?), 안정성(밑줄에 적은 이유가 얼마나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보편성(밑줄에 적은 이유는 다른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차원을 측정하는 세 가지 질문에 7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예로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의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적 성취 상황의 예로는 '선생님께 제출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의 내용이 포함된다.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예로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나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긍정적 성취상황의 예로는 '내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적 성취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은 4가지 부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

의 점수를 합한 값이며,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은 4가지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점수의 범위는 12~84점이다. 부정적 상황에서 귀인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부정적 귀인양식을 의미한다. 긍정적 성취상황에서의 귀인양식도 4가지 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의 점수를 합한 값이며, 긍정적 대인관계에서의 귀인양식은 4가지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점수의 범위는 12~84점이다. 긍정적 상황에서 귀인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긍정적 귀인양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 .77, 부정적 성취상황 .82,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 .82, 긍정적 성취상황 .85 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주연(2010)이 번안한 Barber, Stolz 그리고 Olsen(2005)의 청소년 보고용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중 심리적 통제 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 하신다', '내가 무언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화제를 바꾸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적 통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재운(2013)이 사용한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18문항을 아동 보고용으로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로 '엄마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다', '엄마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가르쳐 주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조사에 앞서 질문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내용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용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초등학교의 교사를 통해 배부한 후 20일 이내에 회수하였다. 총 386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85부가 회수되어 약 73.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53개의 아동의 설문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

합리적 양육태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척도 차이를 해소하고, 독립인들과 상호작용한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변인을 표준점수(Z-score)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Aiken 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상, 하)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회귀식의 기울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정적 대인관계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상관($r = .15, p < .05$)을 보인 반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28, p < .001$), 부정적 성취상황에서의 귀인양식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r = .13, p < .05$),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31, p < .001$).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보이고,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적게 나타낼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부정적 귀인양식을 나타냈다. 한편,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r = .18, p < .01$)과 성취상황($r = .21, p < .01$)에서의 귀인양식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에서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낼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긍정적 귀인양식을 나타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 3미만, 첨도의 절대값 10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N = 253)

변인	아동의 귀인양식				어머니의 양육태도	
	1	2	3	4	5	6
1. 부정적 대인관계	1.00					
2. 부정적 성취	.78***	1.00				
3. 긍정적 대인관계	.22***	.18**	1.00			
4. 긍정적 성취	.21***	.18**	.77***	1.00		
5. 심리적통제	.15*	.13*	-.03	-.06	1.00	
6. 애정·합리적	-.28***	-.31***	.18**	.21**	-.38***	1.00
M	3.84	4.34	4.86	4.93	2.02	4.08
SD	0.97	1.07	0.97	1.08	0.74	0.76
왜도	0.26	-0.08	-0.14	-0.19	0.80	-0.91
첨도	0.48	-0.09	-0.12	-0.22	0.15	0.65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귀인성향에 미치는 주효

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 값이 .84~.95로 모두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5~1.19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해석이 가능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시, 1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제(A)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B)를 각각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A×B)을 투입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부정적 대인관계상황과 성취상황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와 같다. 먼저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경우, 1단계에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만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6,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귀인양식을 8%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18, p < .01$), 추가 설명력은 3%로 총 설명력은 1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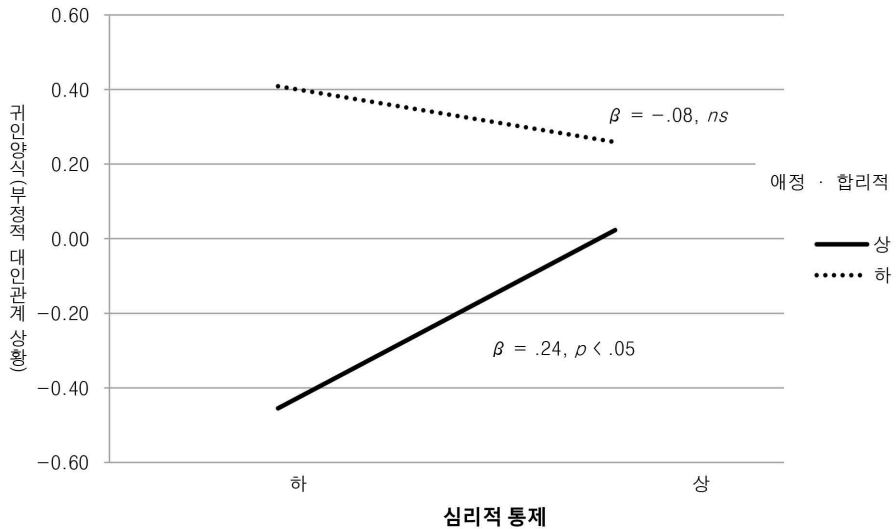
<표 3> 부정적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253)

변인	부정적 대인관계				부정적 성취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심리적 통제(A)	.05	.05	.08	.08	.02	.02	.05	.05
애정·합리적(B)	-.26	-.26***	-.28	-.28***	-.31	-.31***	-.33	-.33***
(A) × (B)			.16	.18**			.19	.22**
R ²	.08		.11		.10		.14	
ΔR^2	-		.03		-		.05	
F(df)	10.73***(2,250)		10.38***(3,249)		13.45***(2,250)		13.89***(3,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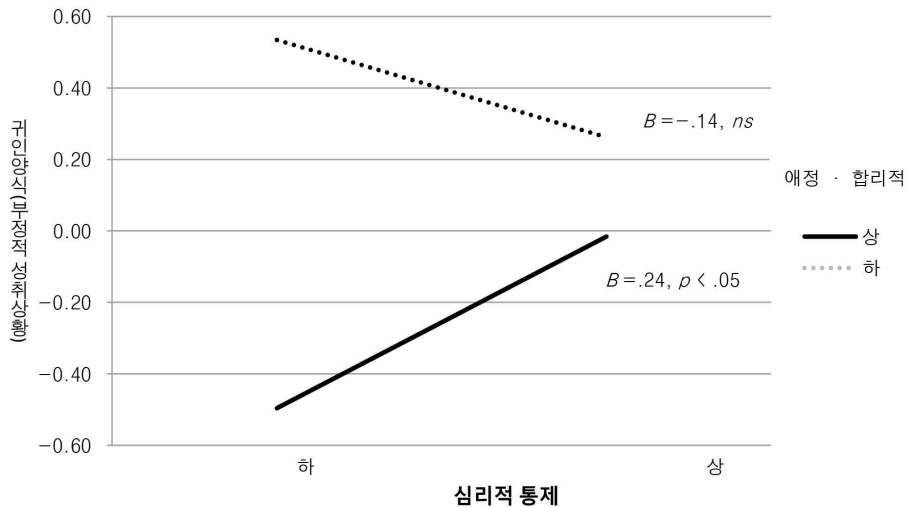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많은 경우에 회귀식이 유의한 반면($\beta = .24, p < .05$),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적은 경우에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8, ns$). 즉,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심리적 통제수준도 높게 지각할 때 부정적 귀인양식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귀인양식은 심리적 통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1],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귀인양식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 대인관계상황의 원인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부정적 성취 상황에서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

부정적 성취상황의 경우에도 1단계에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만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1,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귀인양식을 10%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22, p < .01$), 추가 설명력은 5%로 총 설명력은 14%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많은 경우에 회귀식이 유의한 반면($\beta = .24, p < .05$),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적은 경우에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4, ns$). 즉,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심리적 통제수준도 높게 지각할 때 부정적 귀인양식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귀인양식이 심리적 통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2],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귀인양식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 성취상황의 원인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긍정적 대인관계와 성취상황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만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9, p < .01$), 긍정적 성취 상황의 경우에도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주효과만 유의하여($\beta = .21, p < .01$), 결과적으로 아동이 어머니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많다고 지각하는 것은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의 긍정적 귀인양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긍정적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253)

변인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성취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심리적통제(A)	.04	.04	.06	.06	.02	.02	.03	.03
애정·합리적(B)	.20	.20**	.19	.19**	.21	.21**	.21	.21**
(A) X (B)			.11	.13			.04	.04
R^2	.04		.05		.04		.05	
ΔR^2	-		.02		-		.00	
F (df)	4.48*(2,250)		4.34**(3,249)		5.61**(2,250)		3.87*(3,249)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귀인양식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여,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부정적 귀인양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 긍정적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귀인양식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일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적게 보이고,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귀인양식을 많이 보였으며(정상미, 2015; Garber & Flynn, 2001; Schleider et al., 2014; Velez et al., 2014), 부모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지적인 양육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귀인양식이 적고(Rueger & Malecki, 2011; Velez et al., 2011),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귀인양식을 많이 보인다(여종일, 정문자, 2011)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심리적 통제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귀인양식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자녀가 긍정적인 성취결과를 얻거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행동을 덜 나타내지만, 아동이 성취에 실패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부정적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주효과 뿐만 아니라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통제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정적 상황에서의 귀인양식에 부적의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Velez et al., 2014)를 지지한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하는 양육태도는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 스스로를 비난하고 어느 상황에서나 같은 결과라고 믿는 비관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부정적 상황의 귀인양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함께 작용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인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정상미, 2015; Garber & Flynn, 2001; Schleider et al., 2014)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있었음을 고려해볼 때, 심리적 통제 외에도 애정적이고 합리적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가졌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가 미

치는 영향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많은 경우, 심리적 통제 수준이 낮다고 지각할 때 부정적 귀인양식을 가장 적게 나타냈지만,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할 때는 부정적 귀인양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애정·합리적 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진 인식(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이종욱, 최한희, 박병기, 2012; Suldo & Huebner, 2004; Cheng & Furnham, 2004)과는 다른 결과로, 애정·합리적 태도와 심리적 통제수준이 동시에 높다면, 긍정적 양육태도인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효과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부정적인 대인관계와 성취상황에서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때로는 죄의식을 유발하고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 행동을 보임으로써 어머니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면, 오히려 아동은 혼란과 불안정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수용받고, 애정적인 반응과 지지와 함께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그 상황의 원인과 자신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조건적 관심과 비난을 받고 자신의 표현이 억제되고 무시된다면 잘못된 상황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비난적 사고를 갖게 될 뿐 아니라, 무엇이 확실한 자신의 생각이며,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써 점차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적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부정적 귀인양식을 많이 보였다. 이는 심리적 통제보다도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긍정적 양육태도가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전히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귀인양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긍정적 상황에서의 귀인양식에 대해서는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애정, 합리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한 아동은 긍정적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귀인양식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여종일, 정문자,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어머니가 애정을 보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성공적인 성취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며, 항상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긍정적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에 심리적 통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성취상황에서 아동은 성공의 결과를 자신의 공헌으로 받아들이고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위주 귀인편향(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대상 아동에게서 긍정적 상황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동의 자아를 보호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낙관적이고 동기적 태도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88), 한편으로 지나친 편향은 상황을 왜곡하고 실패상황에 대한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보이는 긍정적 귀인양식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과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양육태도가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머니도 긍정적인 결과의 몫을 자녀에게 돌림으로써 자녀를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자녀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태도는 적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긍정적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아동이 경험하는 상황을 대인관계와 성취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사람들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귀인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떠한 귀인양식을 보이느냐에 따라 느끼는 정서와 관련된 행동들이 다를 수 있다. Turner와 Cole(1994)은 사회적 상황, 학업상황, 운동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귀인양식을 살펴본 결과, 학업상황을 사회적상황과 운동 상황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부정적 학업상황에서 보이는 부정적 귀인양식이 사회적 상황과 운동 상황에서 보이는 부정적 귀인양식보다 우울과 더 많은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보다 부정적 성취상황에서 부정적 귀인양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보다 긍정적 성취상황에서 긍정적 귀인양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귀인양식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태도 및 심리적 통제와 갖는 상관도 대인관계상황보다 성취상황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귀인양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맥락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과 아동의 귀인양식의 상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이는 귀인양식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긍정적 상황의 귀인양식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만이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 상황의 귀인양식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통제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부정적 상황에 처한 아동이 부정적 귀인양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러한 결과는 특히 부정적 상황에 처한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함을 알려주는 결과임과 동시에 어머니의 비일관적 태도로부터도 취약함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통제를 모두 보이는 어머니의 비일관적 태도는 아동이 부정적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부정적 효과가 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부정적 귀인양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비일관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만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귀인양식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추론하고 해석하는 사고과정으로 이러한 사고과정 형성 및 발달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태도 외에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아동이 경험한 생활 사건들, 부모 외 또래나 교사등과의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을 일부지역을 한정하여 초등학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비교적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수준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득수준과 지역적 차이, 더 나아가 연령과 성차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의 보고만을 사용하여 실제로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였는가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보고를 함께 분석하여 실제 양육태도와 지각된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떠한 변인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귀인양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두 가지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작용의 효과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는 특히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통제가 두 가지 상반된 긍정, 부정의 양육태도로서 두 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정적 귀인양식을 낮추고,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특히 아동이 부정적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이 동시에 나타나 비일관적인 양육을 보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아동의 부정적 귀인양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주로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황으로 한정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황 뿐 아니라 긍정적 상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상황에서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각각의 상황을 대인관계 영역과 성취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된 일상 경험들 속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귀인양식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남정민, 성형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47-170.
- 박경일, 이상주, 권기형 (2004). 부모 양육태도와 귀인성향 및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177-200.
- 박재윤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기질-양육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여종일, 정문자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귀인양식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3(1), 53-64.
- 이경남 (2010). 부모요인과 아동의 기질 및 내재적 통제소재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47-57.
- 이민영, 김광웅 (201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행동통제특성과 내외통제소재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소영, 허균 (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귀인성향 및 정서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4(1), 309-317.
- 이종욱, 최한희, 박병기 (2012). 부모양육방식과 자녀발달특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21(4), 275-296.
- 정미영 (2009). 청소년의 귀인양식과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미 (2015). 어머니의 심리통제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주연 (2010). 부모 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 Anderson, C. A., Horowitz, L. M., & French, R. (1983). Attributional style for lonely and depressed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27-136.
- Aunola, K., & Nurmi, J.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llash, N., Pemble, M. K., Usui, W. M., Buckley, A. F., & Woodruff-Borden, J. (2006). Family func-

- tioning, perceived control, and anxiety: A meditational model. *Anxiety Disorders*, 20(4), 486-497.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51.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 Coles, M. E., Turk, C. L., Heimberg, R. G., & Fresco, D. M. (2001). Effects of varying levels of anxiety within social situations: Relationship to memory perspective and attribution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6), 651-665.
- Conley, C. S., Haines, B. A., Hilt, L. M., & Metalsky, G. L. (2001). 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terview: Developmental tests of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6), 445-463.
- Garber, J., & Flynn, C. (2001). Predictors of depressive cognitions in young adolesc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353-376.
- Glasgow, K. L., Dornbusch, S. M., Troyer, L., Steinberg, L., & Ritter, P. L.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s. *Child Development*, 68(3), 507-529.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7), 603-618.
- Hankin, B. L., Oppenheimer, C., Jenness, J., Barrocas, A., Shapero, B. G., & Goldband, J. (2009).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depression: Review of processes contributing to stability and change across tim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12), 1327-1338.
- Houston, D. M. (1994). Gloomy but smarter: The academic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4), 433-441.
- Houston, D. M. (2016).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6(3), 192-20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Y: The Guilford Press.
- Lakdawalla, Z., Hankin, B. L., & Mermelstein, R. (2007). Cognitive theories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nceptual and quantitative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10(1), 1-24.
- Macleod, A. K., & Moore, R. (2000). Positive thinking revisited: Positive cognitions, well-being and

- mental-healt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1), 1-10.
- McGinn, L. K., Jerome, Y., & Nooner, K. (2010). Family functioning and anxiety in school age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control cogn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3(3), 228-244.
- Mezulis, A., Hyde, J. S., & Abramson, L. Y. (2006). The developmental origin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emperament, parenting, and negative life events in childhood as contributors to negative cognitive style.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012-1025.
-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4). Causal explanations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1(3), 347-374.
- Rueger, S. Y., & Malecki, C. K. (2011). Effects of stress, attributional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0(3), 347-359.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Schleider, J. L., Velez, C. E., Krause, E. D., & Gillham, J. (2014). Perceived psychological control and anxiety in early adolescent: The mediating role of attributional sty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8(1), 71-81.
- Seligman, M. E. P., Peterson, C., Kaslow, N. J., Tanenbaum, R. L., Alloy, L. B., & Abramson, L. Y. (1984).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2), 235-238.
- Shahar, G., & Priel, B. (2002). Positive life events and adolescent emotional stress. In search of protective-interactive process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6), 645-668.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165-195.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93-210.
- Thompson, M., Kaslow, N. J., Weiss, B., & Nolen-Hoeksema, S. (1998).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revised: Psychometric examin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0(2), 166-170.
- Tripp, D. A., Catano, V., & Sullivan, M. J. L. (1997). The contribution of attributional style, expectancies,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 cognition-based depression model.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9(2), 101-111.
- Turner, J. E., & Cole, D. A. (1994).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gnitive diatheses for chil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1), 15-32.
- Velez, C. E., Krause, E. D., Brunwasser, S. M., Freres, D. R., Abenavoli, R. M., & Gillham, J. E. (2014). Parent predictors of adolescents' explanatory styl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5(7), 931-946.

Vines, L., & Nixon, R. D. V. (2009). Positive attributional style, life events and their effect on children's mood: Prospective stud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4), 211-219.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1), 3-35.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Y: Springer-Verlag.

논문투고: 16.12.15

수정원고접수: 17.03.08

최종게재결정: 17.04.09